

‘우리는 도반’ 이색 참가자

“순례 수행의 의지처”

사형제 함께 순례 보림 · 보월 스님

법주사에서 함께 온 보림 스님과 보월 스님은 같은 조에 속해 옆테트를 쓰며 순례에 임하고 있다. 순례 후 숙영지서 지쳐 있을 때면 집을 날라주고, 서로 챙기는 사형제간의 정을 보여주고 있다.



사형인 보림 스님은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일생에 한번 될까 말까한 기회”라며 “불교중흥이란 큰 주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림 스님과 보월 스님은 각자 지인 스님의 추천으로 참여하게 됐다. 걷는 순례가 처음인 보림 스님과 달리 보월 스님은 수차례 혼자 순례를 진행한 적이 있어 큰 힘이 되고 있다.

보월 스님은 “20여 년 전에 오대적멸보궁을 송광사에서 출발해 봉정암까지 혼자 걸식하며 걸어간 적이 있다. 3년 전에도 동해안 해파랑길 760km를 한 달가량 순례했다”며 “삼보사찰과 인연을 맺게 되어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보월 스님은 “같이 무엇을 하다보면 다 녹일 수 있다. 묵묵히 한발 한발 가면서 부처님 제자라는 동질감이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보림 스님은 “의지하며 많은 힘이 됐다. ‘사형사제간의 정도 두터워 지고 좋은 추억도 쌓는 것 같다’고 미소 지었다.

“어른 뒤편이 행복”

사제 함께 순례 정혜 · 해인 스님

정혜 스님은 “저희 상좌는 뭘 하자고 하면 ‘꼭 해야 해요?’ 하면서 절대 말을 안 듣는다. 그런데 순례는 가자고 하면 온갖 어려움을 다 물리치고 따라 나와요”라며 농담을 건넸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특히 정혜 스님은 중앙승가대에 재입학해 미디어 포교 등 수업을 듣고 있다. 현재도 4학년이다.

스님은 “집을 비우고 나와야 하니 농사일도 해놓고 나와야 하고, 신도 관리도 해놓고 나와야 하고, 코피 터지게 해놓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혜 스님은 순례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전했다. “걷고 나면 본인이 스스로 많이 변하고 화두도 잘 들고, 힘들어도 밤에 앉아서 참선도 하고 해서 따라 나섰어요.”

상좌인 해인 스님은 “저도 오십이 넘어 갱년기가 오다보니 힘든 게 많지만, 어른스님이 관절도 안 좋는데도 앞서서 걸어가시니 ‘어른이 하시는데’라며 따르고 있다”며 은사스님의 말을 받았다.

이어 “어른스님들이 앞장서시는 걸 본받으며 따라가고, 젊은 스님들이 어른 스님들을 도우며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잘 걷고 있어요.”



회향자인 불보종찰 통도사로 순례 행렬을 이어가는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의 모습.

승보 · 법보 거쳐 불보사찰로 나아가다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악조건 속 순례… 불교중흥 발원

11일부터 이어진 ‘우중 행선’ 부상속출, 추위까지 이중고 순례여정 지역 환대 이어져 각계각층 1일참가자로 참여

경북 · 경남 일원=노덕현 기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상월결사(회주 자승)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하 삼보순례단)이 승보종찰 송광사를 출발해 법보종찰 해인사를 거쳐 10월 15일 경남 밀양에 도착했다. 불보사찰 통도사를 목전에 앞두고 다시 한번 불교중흥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했다. 앞서 10월 9일 순례단은 법보종찰 해인사에 도착했다. 해인사 일주문에 도착한 순례단은 가을 국화꽃이 놓인 화엄일승법계도를 따라 걸었고 장경각으로 향했다. 팔만대장경의 판전은 묵언으로 법을 전하듯 순례단을 맞았고, 순례단은 행렬을 지어 팔만대장경을 찬경하며 합장했다.

순례단은 10일 함천군 야로면을 거쳐 고령군 덕곡면 예마을까지 22km 구간에서 순례를 진행했다. 개울물 소리를 들으며 걸음을 재촉한 순례단을 맞이한 것은 누렇게 벵가 익어가는 가을 들녘이었다. 순례단은 오전 4시



10월 11일부터 많은 비로 순례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순례 정진은 이어졌다.

순례를 시작해 오전 10시 숙영지인 예마을 캠핑장에 도착했다. 순례단을 위해 동화사 신도회를 비롯해 청암사 등에서 마중을 나왔고 힘을 보탤었다.

불보종찰로 향하는 길은 순탄치는 않았다. 11일 삼보순례단은 우중 행선(行禪)을 펼쳤다. 기상악화로 인한 때늦은 비에 12일차인 11일부터 12일 등은 습기와 추위가 순례단을 엄습했다. 하지만 같이 길을 걷는 이들이 있기에 악전고투 속에서도 웃음꽃은 피어났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부터 선광 스님, 오심 스님 등 스님들과 박기련 지원단장을 비롯해 순례단에서는 작은 농담 하나에도 서로 밝은 웃음을 보이며 힘을 더했다.

빗속에 12일 경북 고령 숙영지를 출발한 순례단은 경남으로 진입했다. 순례여정 속에는 마을 주민들이 추위로 지친 순례단에게 따뜻한 음료를 내놓고 반겼다. 또한 휴식지인 마을회관마다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성익경 창녕 이방면장을 비롯해 마을주민



법보종찰 해인사의 장경판전에서 팔만대장경에 합장하는 순례단원들의 모습.

들은 “국난극복을 위해 순례하는 순례단의 기운을 받아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하루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회주 자승 스님도 주민들에게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일상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마음을 모아줘 감사하다”고 답했다.

지속적인 비는 순례단을 지치게 했다. 쉬어가는 곳마다 짙은 신발을 벗고 발을 말리는 이들과 치료를 받는 이들이 늘어만 갔다. 회주 자승 스님도 이방면 공관장에서 응급치료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순례에 같이 마음을 모아준 주민들 덕분에 순례단은 잠시 비를 피하고 몸을 따뜻하게 녹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삼보순례는 종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순례에 동참했다.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 주호영 국회의원 등 매일 수십 명이 1일참가자로 순례단의 뒤를 따랐고 인근 사찰 불자들이

마중을 나왔다.

1일참여자로 참여한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은 “순례단에 합류하고 보니, 인도에서 부처님이 이웃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생각하게 된다. 이런 자리를 마련한 자승 스님이 고동받는 이웃을 위해 노력하는지도 느끼게 됐다. 모두 함께 이웃을 위한 회향이 되길 발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천리순례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방역과 안전에 만전을 기했고, 진행팀과 안전팀의 긴장도 높아졌다. 순례단 행렬은 지역경찰 경찰서에서 경찰차로 에스코트 하고, 앞뒤로 동국대 직원들로 구성된 안전팀에서 행렬을 안내했다.

장영욱 지원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순례단의 건강”이라며 “행사팀 숙영팀 공양팀 자원봉사팀 등 50여 명이 순례단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식지마다 발이 아픈 이들과 다친 이들로 의료팀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김명숙 의료팀장은 “물집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 보다, 체력저하로 힘들어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그럼에도 치료를 받으시고 순례를 계속해나가는 모습에서 불자로서 감동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염원을 함께 안고 순례단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향자인 통도사로 향했다.

한편,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10월 18일 불보종찰 통도사에 도착해 회향식을 개최했다.

〈회향식 치주 상보〉

삼가 보은에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번 저희 아버님(원암당혜명대종사) 상사시에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고 조의와 위로 덕분에 무사히 상례를 마치게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찾아 뵙고 인사 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니 황망중이라 지면으로 인사 드리게 됨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댁내 어려움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보답할 기회로 생각하고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장 마이산탐사 주지 진성 올림

전주후인혜명 이왕선 각령

아들 이재원, 이재동(진성), 이재문	손주 이승훈, 이성현, 이성결, 이계향(정원), 이정향, 이소율(명심)
며느리 이순옥, 김명옥(연심), 오혜정	이정준, 이정찬, 이정훈, 이정환, 이연주, 동채원, 동기용, 동경은
딸 이금주, 이은주	손주사위 임정필, 구본웅
사위 이이범, 동상진	증손 임로빈, 구아인

전주이씨 효령대군 첨지공파 18대손
원암당 혜명(이왕선)대종사존령

■대상좌 : 청파 진성스님 ■중상좌 : 대련스님, 추파스님
■손상좌 : 정원, 정진, 정인, 정운, 정유, 정안, 정인, 정만, 자비심, 혜수향